

- 1. 영생대도의 실천
- 2. 영생학의 보급
- 3.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의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뭇처럼 여겨라.

신년사

창교(創敎) 36년을 맞는 丙申年 구세주의 뜻을 이루려면 각자의 역할 다해야

1980년 10월 15일 구세주 조희성님께서는 마귀에게 점령당한 당신의 자식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마귀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비밀리에 오셨다. 이날은 마귀의 포로였던 하나님께서 유사이래 최초로 마귀의 속박의 사슬을 끊고 탈출하여 나온 역사적인 날이다. 이날 산천초목은 기뻐 날뛰며 춤을 추었고, 온 천하를 덮고 있던 공기들도 구세주 출현의 기쁨을 특유의 춤으로 일컫었다고 한다. 이처럼 인간을 제외한 삼라만상은 자신들을 영원히 마귀의 포로된 상태에서 해방시켜 줄 구세주가 출현하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했지만 정작 인간들만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이것으로 우리는 인간들이 얼마나 강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죽음의 세상을 뒤집어엎으려 구세주가 오셨다

어쨌든 구세주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당신의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을 다시 환원해서 말하면 이 세상은 마귀가 집권하는 세상인 고로 하나님의 후손인 인류가 모두 죽음의 지배아래 있으므로 마귀 세상을 뒤집어엎어 죽지 않는 세계, 천국을 재창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구세주 하나님께서는 전력을 투구하여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승리제단 초창기에 불과 몇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신도 수는 곧 수백 수천으로 불어나게 되었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하였다. 국내에는 역곡을 기점으로 하루가 다르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3개 제단이 설립되었으며, 해외에도 일본 시모노세키를 필두로 고베, 오사카, 구라메 등과 미국의 심장부 뉴욕과 필라델피아, 영국의 런던 등에 제단이 설립되었다.

죽음이 지배하던 이 세상에 영생을 주는 구세주가 출현하시니 기성 종교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에 의해 수많은 시비(是非)가 일어났다. 격암 선생은 구세주는 시비(是非) 많은 진인(眞人)이라

고 격암유록에 기록해 놓았던 그대로 천하에 시비가 분분하였던 것이다. 그중 마귀의 조종을 받는 자들에 의해 온갖 방해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나 그런 방해 역사에도 불구하고 구세주께서는 드디어 1991년 8월에 역곡 지금의 자리에 본부제단을 건립하시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천군(天軍), 즉 구세주를 키워 배출하는 산실(産室)을 마귀의 방해공작을 이기고 마련하신 엄청난 쾌거였던 것이다.

그러자 마귀들이 총공격을 하였고, 구세주께서는 역울한 누명을 쓰고 7년간 옥고를 치르셨으며, 급기야 보광의 길로 가시게 되었던 것이다.

이기는 생활을 하여 구세주의 뜻을 이루자

구세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새해에는 36년이 된다.

'36년' 하면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 아래 지배를 받았던 36년이 떠오른다.

1910년 한일합방이 되어 나라를 잃었던 우리나라는 1919년 3월 1일 순병희 선생을 비롯한 각계 지도자 33인이 탑골공원 앞에서 대한제국의 독립을 외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김구 선생을 비롯한 우국지사들에 의해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으며, 그후 국내외에서 수많은 독립지사들이 일제에 항거하여 급기야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감격을 맞이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승리제단은 창교(創敎) 이후 36년이라는 긴 세월을 맞고 있지만 아직도 마귀의 압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그만큼 마귀의 세력이 강해서도 그런 것이거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천군(天軍)의 세력이 미약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더욱이 아직도 구세주의 보광하신 뜻을 모르고 신앙이 후퇴하거나 담보 상태인 교인들이 많다. 이태서는 안된다. 구원 사업에 앞장서서 일하는 간부들은 단합과 단결을 위해서 '나'라는 주제 의식이 주장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는 생활, 이기는 생활을 해야 한다.

구세주께서는 우리들을 영생시키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놓으셨다. 우리는 구세주의 위대한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새해에는 더욱 구세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매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인사발령

본부제단 4지역장 박명하



승리제단 신도회(윤봉수 회장)는 본부제단 4지역장으로 박명하님을 임명하였다.

신인 박명하 지역장은 1987

년 대한항공 방콕지사에서 근무 시 도착한 비행기를 점검하던 중 객실에 승리신문(당시 승리회보)이 있는 것을 읽어본 후 도통을 하신 분이 있다는 내용이 있어 보관하고 있다가, 1988년 본사로 귀국하여 승리제단에 찾아가 구세주님을 만나 뵈게 되었고, 약 3년간 제단을 다니다가 해외(홍콩)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제단과 멀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후 증산도에 입문하여 약 6년간 수도를 하다가 증산도에서는 이법(理法)은 그럴듯 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인데 동양철학이 어렵고 우주변화의 원리가 어렵다고 말하더라도 실제로 아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비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2013년 3월에 본부제단에 나오게 되었다.

선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인류를 하나님으로 변화시키는 작은 구세주의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길 바란다.*

새해에 드리는 말씀

“변화를 입자”



별 테러일 것입니다. 최근 파리와 미국에서 이어진 테러는 지구촌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안심하고 살 수 있을까요? 이제 지구촌에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게 돌아갈 때 일수록 우리 교인들은 더욱 구세주의 구원사업을 알리는 데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본부제단 특별전도팀은 시민초청강연회를 기획하였고, 8월에 본부제단 회의실에서 구세주님 보광 후 첫 시민초청강연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공영방송에서 허위사실로 우리 제단의 명예를 훼손한 이영돈 PD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이 건에 대해서 서울남부지검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피고소인 이영돈 PD 측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어쨌든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상에 맞추어 우리 제단도 전도를 비롯한 모든 일에 변화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변화를 입자'고 구호를 정했습니다. 올해 우리 교인들은 나름대로 조금씩은 변화했을 것입니다. 그 여세를 몰아 새해에는 더욱 변화를 입어 구원권에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면에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는 외부로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도입니다. 2015년에는 전도지원금을 받은 제단이 본부제단밖에 없어서 조금 유감입니다. 전도는 구세주께서 주신 지상명령이므로 새해에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부터는 작년과 달리 본부제단 특별전도팀이 각 지방제단에 의무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방제단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영광의 빛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모두 더욱 노력합니다.*

승리제단 신도회장 윤봉수 올림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메시아절)
“12월 25일은 5,000년 전부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메시아날”

5,000년 전부터 지켜오던 메시아절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지켜오던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월 25일만 되면 메시아절로 지켜왔던 것을 우리 승리제단에서 지키는 것은 진짜 메시아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 가운데 지구 땅 위에서 5,000년 전부터 지켜왔던 메시아절을 이어받아서 지키고 있는 단체는 우리 승리제단 밖에 없습니다. 5,000년 전부터 메시아절로 지켜오던 그 절기

를 누가 탄생한 날로 고쳐서 모든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메시아의 날을 기념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내 마음속에 메시아를 모셔야 메시아의 존재 의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구세주요, 구세주는 바로 나를 구원하는 구세주인 고로 내가 변하여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에 의하여 메시아가 왔다는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72)
“에덴동산은 유형(有形)의 지역이 아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중동 팔레스타인 근방에 에덴동산이 있었다고 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성지 순례니 뭐니 하면서 구경들을 가는데, 에덴동산은 결코 육지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에덴동산은 하늘나라요, 하늘나라는 천국인데,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너희 마음속에 있나니라.'(눅17:21)한 바와 같이 의인의 마음속에 에덴동산이 있었던 고로 아담과 해와의 마음이 행복과 평화로 가득한 에덴동산이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 에덴동산이었던 것이

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를 합하여 에덴동산이라고 하고, 십사만 사천이라고도 하며, 십사만 사천은 삼(三)수를 가리키며, 삼(三)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생명과 의의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과 의의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자유율법이요, 이긴자요, 완성된 창조주 하나님인 것이다.*



성령으로 거듭나라

승리제단의 도(道)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도(道)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므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된다.

여기서 '거듭'이라는 말에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영이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사람의 조상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점도 추론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첫 조상은 영체(靈體)였다는 것까지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현재와 같은 사람으로 변했을까?

구세주 조희성님께서는 원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존재하고 있었으며, 마귀의 영 또한 스스로 존재하고 있다가,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하나님의 영이 마귀의 영에게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있다. 즉 인류는 창조나 진화에 의해 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마귀의 영에게 사로잡힘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류의 출현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나 이러한 주장에 따를 때 인

류의 조상은 흙과 원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된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후손이라는 천손민족이라는 술어와 사람속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인내천(人乃天) 사상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인류의 뿌리가 하나님의 영이므로 누구나 사로잡고 있는 마귀의 영을 소멸시켜 버리면 원래의 하나님의 영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하여야 성경 말씀, "성령으로 거듭나다"가 제 의미를 갖는다.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주역에 "君子終日乾乾(군자종일건건) 夕惕若無咎(석적약여무구)"라는 말이 있다. 군자는 종일도록 부지런히 힘쓰고, 저녁에는 두려운 듯 반성한다. 그러면 위태로우나 허물은 없다는 뜻이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 후 자기 전에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 반성하여 그 허물을 고쳐야 한다. 그렇게 고쳐가다 보면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이 되게 된다.*

